



# 레알 마드리드 돌아온 '복덩이'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호셀루가 9일(한국시간)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동점골을 터뜨린 뒤 포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돌고 돌아 서른을 넘겨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복귀한 호셀루(34)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결승행을 결정짓는 연속골을 책임지며 '동화'를 완성했다. 호셀루는 독일과 잉글랜드 프로 무대를 누비며 1년마다 보파리를 싸는 전형적인 저니맨이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가' 레알 마드리드는 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24 UCL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2-1 역전승을 거둬 12차전 합계 4-3으로 앞서며 결승에 진출했다.

UCL 최다 우승기록을 보유 중인 레알 마드리드의 'UCL DNA'는 강했다. 승리의 주인공은 후반 36분 교체로 투입된 호셀루였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가 0-1로 뒤지던 후반 43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슈팅을 뮌헨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제대로 잡지 못하자 재차 슈팅해 동점골을 넣었다.

3분 뒤에는 안토니오 루디지가 왼쪽에서 올린 낮은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마무리하며 레알 마드리드에 영국 런던 헹 터킷을 안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뮌헨을 상대로 UCL 9경기 연속 무패(7승 2무) 기록하며 천적 관계를 이어갔다. 뮌헨이 이

## 호셀루 멀티골로 2-1 승... 뮌헨 잡고 UCL 결승행

대회 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건 2011-12시즌 대회 준결승 1차전(2-1 승)이 마지막으로 무려 12년 전 일이다.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는 후반 31분 교체 투입된 6분 만에 헤더로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모처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UCL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극적으로 연속골을 터뜨리며 8만여 명의 홈 팬들을 열광하게 한 호셀루는 레알 마드리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선수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2군인 카스티야 출신이다. 2010-11시즌에는 팀 내 득점 1위, 2011-12시즌에는 리그 득점 1위에 오른 등 스트라이커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1군의 부름을 받아 라리가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다. 호펜하임, 프랑크푸르트, 하노버(이상 독일), 스톡 시티(잉글랜드),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스페인), 뉴캐슬(잉글랜드)에서 차례로 뛰었다. 거의 한 시즌마다 팀을 옮겼을 정도다.

2019년에는 라리가의 하위권인 알라베스(스페인)에 정착, 매 시즌 두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그러나 알라베스에서의 3번째 시즌에는 팀 강등을 막지 못했고, 지난 시즌 에스파냐로 이적했다.

10년 넘게 여러 팀을 전전하면서도 어려서부터 동경해온 레알 마드리드를 향한 애정은 그대로였다. 2022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UCL 결승전 날 호셀루가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하얀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호셀루는 올 시즌에야 레알 마드리드의 주축으로 뛰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카림 벤제마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해리 케인(현재 바이에른 뮌헨) 영입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케인의 소속팀이던 토트넘(잉글랜드)과 이적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가성비가 좋은 호셀루를 에스파냐로부터 임대로 영입하게 됐다. 12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온 호셀루는 제 몫을 다했다.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리그에서 9골을 넣었다. 마침내 그는 이날 레알 마드리드를 UCL 결승으로 이끄는 연속 극장골을 책임지며 환하게 웃었다. 카스티야를 떠나고서 12년 만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카를로(가운데) 감독이 9일(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결승행을 확정지은 뒤 선수들을 껴안고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625경기 누빈 불사조 여오현 “IBK 수석코치로 새 출발”

프로배구 남자부 최고참 선수에서 여자부 새내기 지도자가 된 여오현(45) IBK기업은행 수석코치가 선수들에게 '열정 DNA'를 심어주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여오현 코치는 8일(한국시간) 2024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이 열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여자부는 처음이지만) 배구는 똑같은 선수가 하는 것이라고 김호철(IBK기업은행) 감독님이 말씀해주셨다”며 “선수 시절 파이팅이 있고 열성적인 선수가 되고 싶었다. 선수들도 그렇게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1978년생인 여오현 코치는 프로배구 원년인 2005년부터 2023-24시즌까지 무려 20시즌 동안 리베로 선수 생활을 펼친 배구계의 '불사조'였다. 그는 이 기간 역대 최다인 625경기를 뛰었고 리시브 정확 1위(8005개), 디그 성공 1위(5219개)에 올랐다.

여 코치는 지난 시즌에도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고 플레인 코치로 20세 가장 어린 후배들과 22경기를 뛰었다.

만 45세까지 현역 선수를 하겠다는 '45세 프로젝트'를 완수한 여 코치는 지난날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여 코치는 은사인 김호철 감독의 요청을 받고 여자배구 IBK기업은행에서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 코치로 새 출발한 여오현이 8일(한국시간) 2024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이 열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선수들의 몸놀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연합뉴스

여 코치는 “45세, 600경기 출전 같은 타이틀보다는 시즌도 쉬지 않고 출전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김호철 감독에게 제의받았을 땐) 감사한 마음보다 두려움이 컸지만 잘 할 수 있다고 힘을 주셔서 (은퇴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캐피탈 팬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 6개 대회 연속 도전 코르다 “바빠서 기록 생각 못해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연속 기록을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이어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코그나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 약 41억4000만 원)에 출전하는 코르다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9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연속 기록을) 하 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르다는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조리 우승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나 소렌스탐(스웨덴)에 이어 5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우승하면



세브론 챔피언십 우승 후 입수 세리머니하는 코르다. 연합뉴스

LPGA 투어 연속 우승 신기록을 수립한다. 코르다는 “그동안 너무 바빠 연속 기록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세브론 챔피언십 우승 이후 고향인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서 주니어 여자골프 대회를 주최하고, 뉴욕 갈라쇼에 참가하는 등 분주한 일주일보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